

# 전북연구원 보도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동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당실장 :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  
(063-280-7161)

보도시점 : 2016년 4월 19일(화) 12시부터

## 맞벌이 가구 여가시간 부족,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 전북연구원 '전북 맞벌이가구 실태 및 의식' 분석

-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는 생활시간 압박을 크게 받아 여가시간이 부족하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19일 정책브리프(통권 5호)에서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가계지출이 많고, 생활시간 압박을 더 받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구성비를 보면 월400~600만원 미만 비율은 24.6%, 600만원 이상 비율은 11.7%인 반면 맞벌이 아닌 가구는 그 비율이 각각 10.6%, 7.4%에 불과하여 맞벌이 가구의 고소득 비율이 크게 높았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과 더불어 월평균 가구지출액도 높아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월평균 52만 5천원을 더 지출하고 특히 청년층은 월평균 89만 7천원을 더 지출하였다.
- 맞벌이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123.3분, 주말여가시간은 218.5분으로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평일에는 59.8분, 주말에는 26.3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간 압박을 받고 있는 맞벌이 가구가 주중 79.5%, 주말 65.1%로 시간에 쫓기며 사는 가구 비중이 매우 높았다.

- 맞벌이가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7.0점으로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0.4점 높으며 자신의 건강상태(+0.5점), 가정생활(+0.3점), 사회생활(+0.4점) 등 전 부문에서 높았다. 맞벌이 남녀간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여성은 사회생활(+0.1점)과 재정생태(+0.1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맞벌이 가구 현황 분석을 통해 맞벌이 가구가 일·가정양립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대와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역 여가·체육·문화 행사의 가족 중심 기획,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며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맞춤형 수요보육, 마을단위 지역 돌봄이 확대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정책브리프(통권 5호)